

녹색에너지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호남본부 협약 체결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최근 연구원 목포 본원에서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와 '탄소 중립·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스케일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에너지신산업 창업 활성화 및 산업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연구원과 기보는 상호 추천 기업에 대한 ▲기술창업 지원 ▲에너지 신산업 분야 우수기술기업 발굴 및 금융·비금융지원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자문 협력 ▲기술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동구자원봉사센터, 태양광센서등 설치



(사)광주광역시 동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오미덕)는 최근 광주시 동구 동명동과 지원1동 어두운 골목 및 어르신대에 태양광센서등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전력거래소와 광주환경공단에서 후원해 동구 13개동에서 어두운 골목과 어두운 가구 150여세대를 추천받아 진행됐다. 오미덕 센터장은 "외롭고 소외된 이웃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준 한국전력거래소와 광주환경공단 임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과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굿네이버스 호남본부

새봄유치원 좋은이웃유치원 현판식



굿네이버스 호남본부는 최근 목포 새봄유치원의 '약속의 시작' 참여에 따른 아프리카 모잠비크 1:1 아동 결연에 따라 좋은이웃유치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호남본부>

김수영문학상에 김석영 시인



제41회 김수영문학상 수상작으로 김석영(41·사진) 시인이 선정됐다고 상을 주관하는 민음사가 16일 발표했다. 수상작은 시 '정물처럼 앉아' 외 50편이다. 심사위원단은 "모든 시편이 고된 완성도를 유지하며 자아내는 긴장감이 눈에 띄었다"며 "시인의 치밀함과 인내심이 느껴졌으며, 한 편의 시마다 스스로 던진 화두를 스스로 해결해 내는 매력적인 완결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평했다. 상금은 1천만원이며, 수상 시집은 연내 출간될 예정이다. 추계예술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김석영은 2015년 '시와 반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이불빨래 세탁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15일 해남군 화원면에서 봉사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송보송 빨래한데이' 이불빨래 세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한국119청소년단원 학생들, 광주 동구소방서에 감사편지

광주 동부소방서는 소방의 날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한국119청소년단원 학생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행복나눔 편지를 전달 받았다. <사진> 편지에는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함과 '저도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와 같은 장래 희망이 담겨 있었다. 감사 편지를 받은 동부소방서 직원들은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큰 감동과 소방관으로서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and Time Slot.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Lists EBS1 programs such as '왕초보 영어', '한국의 들레길', and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음 10월 24일 甲戌)
36년생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행함이 가장 무난하다. 48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60년생 상서로운 빛이 비치니 갑한 조짐으로 봐도 된다. 72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84년생 손질해야 할 것들이 많으리라. 96년생 성취의 교두보를 설정하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72
37년생 요령을 보인다던 효과가 커질 것이다. 49년생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성과가 크다. 61년생 원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73년생 잘 되어갈 터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85년생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인지한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97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0, 83
38년생 지나치게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50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62년생 익숙하고 단란이 되어 있어서 할 만하리라. 74년생 방도는 좋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 86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98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4, 58
39년생 종합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려도 된다. 51년생 의외의 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 63년생 불합되기도 전에 또 다른 것이 터지리라. 75년생 정밀하고 신속하게 일하는 것이 맞다. 87년생 복잡다단한 판세가 계속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되겠다. 99년생 탄력이 불을 때 집 중적으로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3, 52
40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으리라. 52년생 이면까지 살펴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64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76년생 조절의 시기를 놓친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나. 88년생 도모하던 바는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00년생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43, 63
41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53년생 명분이 확실하다면 제기해도 된다. 65년생 훗날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77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89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01년생 인과 관계를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0, 75
42년생 금방 왔던 것을 파악하게 되리라. 54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될 것이다. 66년생 충분한 분석과 고찰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78년생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순탄함을 낳을 것이다. 90년생 내키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02년생 끈질기게 밀고 나간다면 분명한 승산이 보이겠다. 행운의 숫자 : 27, 51
43년생 물심양면의 상호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55년생 실수한다던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67년생 대세를 인식하고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리라. 91년생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뒷에 걸려드는 폐해가 있을 것이다. 03년생 날날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53
44년생 임시적인 미봉책은 화를 부른다. 56년생 흥망의 여부를 결정짓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68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성취할 수 있다. 80년생 단번에 거침없이 이루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해야겠다. 92년생 막히거나 험을 어진 것이 해결될 수도 있다. 04년생 내버려 두면 점차로 쇠하여 기력을 다한다. 행운의 숫자 : 49, 65
33년생 마음만으로는 아니 되니 언행으로써 표현해야 한다. 45년생 상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 57년생 조짐이 보이거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옳다. 69년생 변함없이 한 걸음이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1년생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리라. 93년생 상대의 태도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거울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4, 82
34년생 검토숙만 달리하고 있을 뿐 내면은 차이가 없다. 46년생 가벼운 언행은 공든 탑을 무너지게 한다. 58년생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 70년생 인식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82년생 의의 잘 아는 바를 하더라도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 94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둔다. 행운의 숫자 : 37, 99
35년생 상대의 절실한 요청이 있을 것이나. 47년생 흠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59년생 표면상으로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중국적으로는 성사되리라. 71년생 기본적인 사실 속에서 중차대한 일이 이루어진다. 83년생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니 미리 알고 대비함이 현명하다. 95년생 순환 구조를 만든다. 행운의 숫자 : 14, 56